

# 日 후쿠시마 원전 최악등급 격상

사고 한달만에 7등급으로…체르노빌 사고때와 동급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 보안원은 12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 자력발전소 사고의 등급을 최악인 7 등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애초 사고 발생 직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5 등급으로 분류했으나 피해범위가 갈 수록 넓어지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등급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최악의 원전 사고와 평가 레벨이 같은 것이다.

원전 사고의 국제평가척도(INES)는 사고의 규모와 심각성을 감안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설정한 것으로 최하인 레벨 1에서 최악인 레벨 7까지 7등급으로 구분된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원자로와 사 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기능이 상

실되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일본 조류의 사태를 중시해 사고 레벨을 격상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지금까지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37만TBq(테라 베크렐)=1조베크렐)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일본총리 자문기구인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63만TBq로 추정했다.

이 같은 방사성 물질 유출량은 어느 쪽이든 체르노빌 사고와 비교하면 10% 정도 수준이라고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강조했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따라 사고의 심 각성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의 니시야마 히데히코(西山英彦) 관방장관은 “체르노빌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으나, 도쿄전력의 마쓰모토 준이치(松本純一) 원자력·업자본부장

대리는 “방출량이 체르노빌에 필적한다. 혹시 (체르노빌) 초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원전은 수소폭발 등으로 방사성 물질을 대량 유출하면서 대기와 토양, 해양, 수질 오염을 가중하고 있다.

한편 에다노 유키 오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등급 격상 이후 원전 인근 주민과 국제사회에 사과하면서, 정부가 건강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사고가 식품에 미치



작년 경영 공시자료 공개…KAVO 존속 위기

‘총체적 부실’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지난해 F1(포뮬러원) 대회의 ‘참담한’ 성적표가 날마다 공개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리아 그랑프리의 운영법인인 카보(KAVO)는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지난해 순익계산서와 재무제표 등이 담긴 경영 공시 자료를 공개했다.

카보가 지난달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10년 결산 및 2011년 사업 계획’을 승인한 뒤 이뤄진 것으로, 외부 감사기관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이 의문’이라는 감사보고서를 낼 정도로 부실했던 지난해 살립살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카보는 이번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총 부채가 2891억 2248만원, 총

원) 등을 포함한 당기순손실은 무려 673억 50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 이월된 미처리결손금까지 포함하면 해결해야 할 미처리결손금만 787억 924만원에 달한다.

외부감사인인 전자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673억여원의 당기순 손실에 총 부채가 총 자산을 190억 만원, TV 중계권료 15억 604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순익계산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입장료를 팔아 거둬들인 매출 138억 874만원, TV 중계권료 147억원을 포함한 지급 수수료(166억 8732만원), 광고선전비(56억 7847만원) 등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모두 803억 4830만원을 지출했다. 결과적으로 627억 5717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경주장 건설을 위한 PF 등으로 부담한 이자비용(48억 1447만

/김재기자 dok2000@kwangju.co.kr

## 하룻밤새 30여차례 ‘흔들~’ 여진 공포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동일본대지 진 피해지역에서 강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규모 9였던 대지진의 여진으로 보이는 규모 6~7급의 강진은 이미 약화된 피해지역의 지반을 흔들고 건물을 붕괴시켜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

특히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근에서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원전의 원자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기가 가능하고 있다.

◇후쿠시마 하룻밤새 지진 30여차례 =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16분께 후쿠시마현의 하마도리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고, 12일 새벽에 후쿠시마 현과 이바라기(茨城)현 일대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됐다.

11일 오후 최초 지진 발생부터 3시간여 동안 후쿠시마에서는 규모 5.5~6의 강진이 3차례 이어졌다. 규모 1~4의 지진까지 합하면 이날 새벽까지 30여차례 지진이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다비토마치에서는 주택 3채가 붕괴해 여고생을 포함한 2명이 숨졌다. 대지진 피해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근에서 여진이 집중 발생하면서 원전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12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남쪽 방류구 부근의 바닷물을 조사하는 ‘샘플링 건물’에서 지진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일어났던 여진은 도쿄 있는 수도권 쪽으로 남하하고 있다. 3월 11일 대지진 발생 이후 이달 7일까지 미야기현 일대를 진원으로 했던 규모 5~7의 강진은 11일 후쿠시마현과 이바라기 현으로 내려왔다. 12일 오전 8시8분께는 수도권인 지바현에서 규모 6.3

의 강진이 관측됐다.

◇ 후쿠시마 원전 안정에 지진이 복병 = 후쿠시마에서 강진이 연일 계속되면서 이미 사고가 난 도쿄전력 제1원전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11일에는 강진의 충격으로 1호기

와 2호기의 외부 전원이 일시 끊기면

## 후쿠시마 집중 원전 안정 복병

### 13~15일 광주시의회 임시회

### 광주공항 이전 등 시정질문

광주시의회는 13일부터 15일간 제188회 임시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4건과 광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1년도 제1회 광주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구의회를 통과한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 문상필·조영표·나종천·송경종·정희곤·박인화·전주연·김민종 의원 등 8명이 어린이공원 안전문제와 이동 악자와 접근성 문제, 광주공항과 군 공항의 일괄이전 등에 관한 시정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클린턴 美 국무장관 16~17일 방한

#### 북핵·6자회담 방안 등 논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6, 1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11일 밝혔다.

마트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보도 자료를 통해 “클린턴 장관은 방한기간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역내 이슈들에 대한 협력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클린턴 장관 방문기간 고위급 리昂에서 북한 우리님 농축 프로그램(UEP) 및 6자회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교착국면에

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32%는 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 자원봉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55%는 대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 – 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익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판매원 KUKJE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고객지원팀)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natural  
Factors<sup>®</sup>

Natural Factors는 캐나다 내추럴팩터스의 등록상표입니다.

